

기러기가족의 초국적 적응전략 및 가족 경로

강 유 진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ransnational Life of Korean 'Wild Geese Family':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Paths Across Time

Kang, Yoo Jean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ABSTRACT

My concern was to explore how the Korean 'wild geese families' functioned to maintain 'familyhood' in spite of spatial separation by using a qualitative approach. I used personal narratives from eleven 'geese mother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Family paths across time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ir complicated nature. Respondents adopted some coping strategies to obtain the flexibility and the stability for relocating their transnational lives. These were 1) communications, 2) relocation of household work, and 3) reinterpretation of 'sacrifice.' It seemed that their family paths become either the continuous type (prolong their stay) or the discontinuous type (not prolong their stay). These were shaped by complex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forces which affe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eps of family life cycle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Korean 'wild geese family' did not move toward the uni-direction with the same experiences and nature. More importantly, it is noteworthy to acknowledge that the prevalence of 'wild geese family' reveals the dynamic interactive nature of the family, i.e., actively responding to the changes and challenges from the diverse circumstances. It is inferred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uch as the class mobility,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values may influence the family life style.

Key words: Korean 'wild geese family', coping strategy, family path

I. 문제제기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기러기가족'이란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기러기가족'이란 자녀의 교육, 특히 영어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영어권 국가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본국에 머물면서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는다. 가족 구성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다국적으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의 한 형태인데,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과거의 초국적 가족이, 한국사회가 한창 경제

성장기에 있을 때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남편이 일시적으로 독일, 혹은 중동의 근로자로 나서야 했던 ‘생계형’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의 기러기가족은 가족 별거의 주된 목표가 자녀의 영어교육이라는 점, 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는 본국에 남아서 돈을 벌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인과 자녀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해외에 송금한다는 점 등 많은 측면에서 과거와 상이한 맥락과 면모를 갖는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대중적·학문적 관심의 큰 부분은 “과연 ‘자녀교육’이 가족원들이 국경을 초월한 분거를 감수할 만큼 크고 절박한 과제인가”에 모아졌다. 즉, 기러기가족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설명이 이루어져왔다(김선미 2007; 김홍주 2001; 오욱환 2008; 조 은 2004; 조혜영 외 2007). 이 연구들에 의하면, 기러기가족의 거시적 동기로서 가장 크게 지목되는 것이 글로벌화 현상과 한국의 교육환경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자녀교육을 위해 부모가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전통적인 자식중심적 가족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경쟁적 교육풍토, 글로벌화 현상, 불투명한 미래 전망 등과 어울려서 기러기가족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서, 기러기가족현상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가 어떻게 문화, 역사, 사회구조적 차원과 상호교차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산물인지를 시사하는 것이다.

기러기가족과 관련된 또 다른 학문적 관심은 “기러기가족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이다. 이미 우리는 신문을 통해 ‘기러기아빠의 죽음’ 등 기러기가족의 비극적 결말과 과정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 왔다. 과연 개별가족원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이로 인한 문제점들은 어떤 것인지가 주된 관심이었다. 이 연구들은(김양희·장은정 2004; 김양희·최명선·이지향 2005; 이현지·남현주 2003; 정광순 2006; 최양숙 2006, 2008; Lee & Koo 2006)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기러기엄마, 기러기아빠, 기러기자녀 등을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는 방식으

로 이들이 각자 떨어져 지내면서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각각의 입장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결국,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녀교육을 목표로 형성된 기러기가족의 미시적 동기와 의사결정 과정, 이와 관련된 거시적 촉진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기러기가족형태가 유발한 적응 결과 혹은 개별가족구성원의 적응 방식 등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러기가족에 관한 또 다른 호기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가족구성원끼리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족간의 유대감을 유지하는지’, 즉 기러기 가족의 가족관계적 특성에 관한 물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몇의 서구의 연구들이(Baldassar 2007; Huang & Yeoh 2005; Parreñas 2005; Schmalzbauer 2008; Sorensen 2005) 초국적 가족의 불완전한 구조와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초국적 가족구성원들이 국경을 넘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상호 강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탐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과연 어떤 요인이 물리적 거리감, 별거의 현실을 초월하여 ‘가족’임을 잊지 않는데 기여하는지, 이러한 요인들을 형성하는 환경적 영향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어떠한 역할변화가 있는지 등 초국적 가족 내 역동성, 적응능력, 변형성(transformation)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초국적 가족관계는 매우 변화무쌍하며 가족원들은 가족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가치, 라이프스타일, 이데올로기 등과 갈등하기도 하면서 가족정체감을 창조하고, 가족 간의 물리적 공간감을 재조정하며,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가족 내 역할과 기대를 추려내는 등 매우 능동적으로 가족 내 관계들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Schmalzbauer 2008).

사실, 외형적으로 보아 기러기가족은 사회적, 규범적, 한국인의 정서상으로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로써 받아들여져 왔다. ‘아

무리 자녀교육을 위한 길이라지만, 어떻게 가족들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서로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가, '대체 그 이면에는 어떤 사회적 불안요소가 작용 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가족이 진정 가족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등 기러기가족을 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만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이제까지 연구들은 기러기가족을 어느 한 시점의 원인과 결과 혹은 성공-실패의 이분법적 시각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어떠한 동기에서 기러기가족을 결심하며, 기러기가족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기러기생활이 과연 성공적인지 혹은 실패인지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사회에서 기러기가족현상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 및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오히려 증산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조은 2004; Lee & Koo 2006). 이 뿐만 아니라, 조기유학과 기러기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러기가족현상을 한 시점에서 단일한 이미지로 간주하여 성공과 실패 혹은 유익과 무익을 논하기보다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기러기가족을 유지하는지의 적응적 가족형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적응적 가족구조의 한 가지 형태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형성을 내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앞서 언급한 서구 연구들의 관점, 즉 '어떻게' 가족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가는지에 관한 가족관계 전략은 유용한 분석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러기가족을 어느 한 시점의 한 가지 유형으로 국한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형가능성과 적응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러기생활 역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가족의 한 패턴으로서 가족 전체의 인생 경로 중의 하나

의 과정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러기가족의 관계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초국적 가족의 삶에 적응해 가는지, 즉 이들이 직면하는 갈등과 도전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적응전략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족관계의 역동성이 장기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기러기가족의 삶의 경로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결국,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기러기가족의 다양성과 역동성, 적응성을 조망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러기가족의 변화가능성과 변형성을 살피는 작업은 기러기가족의 배경과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의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심층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초국적 가족의 가족관계 전략을 중심으로

초국적 가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가족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기나 형태의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Dreby 2006; Yeoh, Huang & Lam 2005)¹⁾.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멀리 국경을 넘어 따로 살아가는 초국적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가족'으로서 상호간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Baldassar 2007; Huang & Yeoh 2005; Landolt & Da 2005; Parreñas 2005; Schmalzbauer 2008; Sorensen 2005). 가족의 절박한 생계와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것이든, 혹은 사회적 신분상승이나 신분 유지를 목표로 현재 가족의 사회, 문화적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든, 각각의 목표와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초

1) 초국적 가족은 목적과 동기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Yeoh, Huang & Lam 2005). 하나는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생계형' 초국적 가족이며, 또 하나는 사회재생산을 목적으로 가족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엘리트형' 초국적 가족이다. 전자의 경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궁핍한 가족들이 사용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것은 주로 중국, 한국 등의 아시아권 나라의 중산층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들이 '자녀교육'과 이를 통한 사회계급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전략이다.

국적 가족은 가족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분리와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최근 서구의 연구들은(Baldassar 2007; Boyd 1996; Da 2003; Landolt & Da 2005; Parreñas 2005; Ryan 2004; Schmalzbauer 2008; Şenyürekli & Detzner 2008; Sorensen 2005) 전혀 다른 나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초국적 가족이 어떻게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는지, 가족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족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관계의 체계로써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관계의 적응능력에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분석의 초점을 초국적 가족 내 역동성과 적응성에 둔다. 즉, 장기간의 별거,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긴장감, 갈등 등을 위기 혹은 해체의 징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환경 즉, 초국적 가족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와 재정의, 도전의 과정으로써 받아들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 어떤 필요에 의해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불안정성의 위협에 직면해서 끝까지 '가족'임을 잊지 않게 만드는 가족 내 관계적 메카니즘, 접촉방식 등 유대감을 발전시키는 가족전략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Bryceson과 Vuorela(2002)는 가족유대감을 창출하기 위한 초국적 가족의 가족전략으로써 '개척자전략'(frontiering)과 '상대화전략'(relativizing)을 제안하였다. '개척자전략'(frontiering)이란 초국적 가족원들이 가족 및 친척들과 상호연결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공간과 문화적 토양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마치 새로운 개척지에 적응하는 것처럼,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가치, 생활방식, 이데올로기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정체감을 창조하고 가족 공간을 재조직하며, 가족 간 역할과 기대를 다시 추려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족이 국경을 뛰어 넘어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 안에 서로 다른 가치, 문화 등을 함께 아울러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때로 세대와 성별에 따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Bryceson과

Vuorela(2002)는 '개척자전략'은 가족 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의 경계를 상호 조절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족원들이 서로 상이한 가치들을 암묵적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으로 수렴한다 하였다.

'상대화전략'(relativizing)이란 초국적 가족원들이 아무리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상호 친밀감과 의무감을 잃지 않고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초국적 가족구성원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호에게 도우미 지원 혹은 친밀한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이들은 타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economic remittance)을 하는 것만으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반대로 가까이 살면서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고받는 친밀한 이웃, 혹은 부모의 형제·자매와 같은 친척들은 비록 핵가족의 경제 밖에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가족구성원을 대신하여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지원관계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초국적 가족들은 가족의 분거로 초래된 심리적 상실감, 관계의 불안정성 등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물리적 거리감의 가깝고 멀음에 상관없이, 혹은 혈연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서적 지원망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상대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Bryceson & Vuorela 2002).

'개척자전략'과 '상대화전략'은 기러기가족이 과연 어떻게 가족원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가족유대감을 창출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러기가족이 자녀교육이라는 가족전체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한국과 미국에 각각 따로 떨어져 지냄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심리적인 대가, 혹은 갈등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전략들은 부부관계의 소원해짐, 외로움, 고립감, 문화적 충돌 등 다양한 감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가족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적,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가족유대감을 유지하고 가족의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개척자전략’과 ‘상대화전략’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하여 기러기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관계적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이 연구는 기러기가족의 가족관계 양상, 특히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유지하는지, 다양한 적응전략을 살피고 이들의 가족과정의 질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연구자가 미국의 동부의 B시에 머물면서 11명의 기러기엄마들을 직접 면접함으로써 수집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최소한 미국에 6개월 이상 최대 9년 정도 머무르면서 남편과 떨어진 채 자녀들의 교육과 뒷바라지를 담당한 소위 ‘기러기엄마’들이었다. 이들의 모집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도적 표집방법, 특히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B시는 유명한 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들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미국 내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본 연구자는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이주한 한국의 기러기가족을 어렵지 않게 마주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막상 현장에 뛰어 들어 보니, 외부인에 대한 기러기엄마들의 경계심이 상당히 컸으며,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는 자체부터 매우 어려웠다. 지난 10여 년간 기러기가족, 혹은 기러기엄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치우치면서, 이들을 사회적으로

‘땃땃하지 못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외부인들의 시각에 상당한 경계와 분노를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섭외는 연구자 역시 기러기엄마의 신분이라는 점과 면접 자료의 성격이 절대로 학문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대중매체에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 사적 정보들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고,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알음알음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응답자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Table 1 과 같다.

면접 장소는 응답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응답자의 집에서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다. 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 기러기가족을 결심한 동기 및 준비 과정에 관한 질문, 둘째로는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의 가족관계 경험, 셋째로는 기러기가족의 삶에 대한 평가, 넷째는 자녀교육 및 훈육 관련 경험, 마지막으로는 미국 정착 및 한인 커뮤니티에 관한 의견 등이다. 기러기엄마들과의 면접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작성해 간 다섯 가지 주제의 질문목록들을 참고하면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응답자들에게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입하는 한 페이지짜리의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심층 면접은 mp3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응답자들에게 녹음과 녹취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녹음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많은 양의 필사본

- 2)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기러기엄마”라는 용어자체가 내포하는 부정적 뉘앙스가 얼마나 큰 지를 깨달은 후부터, 섭외를 원활하게 하고 면접자들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이들에게 “기러기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초국적 가족”이라고 부르자, 이들에게 다가가기가 한결 쉬워졌다. 면접자들은 ‘기러기엄마’를 “낮에는 골프치고 저녁에는 갈비 구워 먹는다” 팔자 좋은 여자로 단일하게 그려진다면서, 기러기가족이 외부인들에게 단일한 생활패턴과ダイ나믹을 갖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기러기생활에 관심을 갖는 외부인인 기러기가족에 대해 뻔히 부정적 이미지만을 파헤쳐서 모든 기러기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일반화 하는 사람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연구자가 면접자와 친해지고 이들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얻기까지는 직접 면접을 시행하는 작업 이전에 이들로 부터 신뢰감을 얻는 과정, 즉 ‘외부인과 기러기엄마 간의 높은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ge	Education/ occupation	Sex/age of child	Motivation of migration	Duration of staying	Duration of expected staying with child	Husband's occupation
A	46	Ph. D/ researcher	Son/16	Child education	1 year	-	Professor
B	40	University/-	Son/16 Son/12	Child education	2 years & 7months	4years	Private business
C	43	University/-	Son/11 Son/9	Child education	5years & 8months	Not decided	Private business
D	38	Ph. D./ professor	Daughter/11 son/6 Daughter/61	Child education	1year	6months-1year	Professor
E	45	University/-	Daughter/18 Son/14 Son/23	Child education	3years	Not decided	Estate agency
F	50	University/-	Son/21 Son/17	Child education	9years	2years	Private business
G	38	University	Son/11	Work /child education	2years	10months	Office worker
H	45	Graduate school	Daughter/13 Daughter/11	Child education	2years	8months	Doctor
I	35	Graduate school/ doctoral student	Son/3	Study/ child education	4years	Not decided	Public official
J	45	Ph. D./ professor	Daughter/16 Son/10	Child education	6months	2months	Public official
K	46	University/-	Son/19 Son/17	Child education	7years	Not decided	Private business

을 한 눈에 파악하고 중심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용을 ‘범주화’ 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자료는 녹음과 필사, 그리고 분석에 이르는 작업을 동시에 순환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필사된 자료를 일단 큰 범주의 묶음으로 나눈 후, 다시 면접 자료들을 정독하면서 큰 범주 중의 일부를 포괄하는 중간 제목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하위 영역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즉, 귀납적 접근에서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가 연역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고, 다시 귀납적 접근으로 돌아가는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자료의 중심 주제를 찾고자 하였다(데보라 K. 패짓 지음, 유태균 역 1998). 분석 과정에 있어서 기러기가족 관련 국내 및 외국의 신문기사, 혹은 홈스테

이 가정 등 관련 인물들과의 인터뷰내용을 심층 면접 자료를 보완하는 이차적 자료로써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떻게 국경을 초월한 가족유대감을 창출하는가?

1) 접촉: ‘아버지 부재’, ‘남편의 부재’ 다루기

면접자들은 가족 내 ‘아버지 부재’와 ‘남편의 부재’를 다루어야 한다. 기러기가족은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한 명의 부모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분명 스트레스와 위기에 취약한 가

족형태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면접자들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만들었다. 이미 선행연구들을(Falicov 2005; Parreñas 2005; Şenyürekli & Detzner 2008; Sørensen 2005)통해서 서구의 초국적 가족들이 다양한 접촉방식을 통해 꾸준히 본국의 가족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이어가면서 가족 간의 연결점을 만들어간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아래 면접자 D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기러기엄마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본국의 남편과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가족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가족’임을 잊지 않으면서 그리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

면접자들이 이용하는 ‘접촉’의 종류는 다양하다. 특히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러기 가족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보다 손쉽고 저렴한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화상통화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쉽고 빠르고도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기러기엄마들의 필수품으로 언급되었다. 물론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만큼 친밀감을 나누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방문에 의한 접촉이 가족원들의 시간과 경제적 상황에 많이 좌우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화상통화 등의 방법은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는 듯하다.

“사람들이 화상채팅 꼭 해야 한 대요. 화상 스킨이 폰을 꼭 설치를 해서 아빠 얼굴 자꾸 보여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바로 그걸 해야 친밀감이 유지된다고 하고. 얼굴을 봐야 된대요. 제가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고 수시로 연락하라고 해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지니까 점점...이메일에다가는 주로 사진을 보내지, 동영상도 보내고. 애들 모습을.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 하고 막 그래야지. 또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화해도 아빠, 친구가 때렸어.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일상적인 대화만을 나누면서 완전히 아빠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매일 매일 대화

를 나눌 수 있도록 해요. 저는 전화 많이 못하지만 애들 하고는 아빠는 계속 전화 하게 해요. 매일 매일.”(면접자 D, 1년)

이 때 주목할 점은 가족 간의 ‘접촉의 질’이다. 아무리 접촉을 통해 본국의 아버지와 상호 연락을 취한다 하더라도 접촉 행동 자체가 저절로 가족원 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게 하고 가족관계의 끈끈한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양적으로 아빠와 아들이,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잠시 있어도 질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끈끈한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라는 면접자 A의 말처럼, 접촉의 빈도 보다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자녀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관심을 보이느냐, 즉 접촉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면접자들은 본국의 남편과 미국의 가족들 간의 접촉의 기회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최대한 접촉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기러기가족의 ‘상대화전략’의 한 부분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기러기아빠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질적으로 충분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도록 관계를 ‘상대화’(relativizing)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면접자들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대화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촉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촉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자들은 자녀의 연령, 가족구성원의 직장 및 학업여건, 즉 생활사이클 등에 따라 각자의 가족에 가장 적절한 접촉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면접자 D의 경우 인터넷 화상통화, 동영상 및 사진을 동반한 이메일 등 주로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접촉 방식을 선호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 가능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단순한 전화통화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면접자 A나 면접자 E처럼 자녀가 중·고등학교 이상의 연령일 경우, 혹은 자녀의 학업이 바쁘거나 기

타 직장 상의 이유로 시간을 맞추어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경우 화상통화보다는 각자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전화 통화나 이메일을 선호하였다.

둘째, 접촉의 질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도 좌우된다. 아무리 가족 간의 접촉을 꾸준히 유지한다 하여도 본국의 남편과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 한 이들 간의 오해가 생기기 쉽거나, 상호간 충분히 친밀감을 전하기 부족한 점이 많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접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의사소통방식이 존재하였다. Schmalzbauer(2008)는 초국적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원을 배려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what to tell)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what not to tell)”를 고려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의사소통방법(selective communication)’이다. 면접자들 역시 ‘선택적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하여 본국의 남편과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절하였는데, 그것은 의사소통이 긍정적 내용을 다룰 것, 그리고 가능한 자세하게 미국생활을 묘사할 것 등의 두 가지이다.

우선 아래의 면접자 B와 면접자 C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생방송”하듯이 본국의 남편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록 자녀와 함께 지내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아버지를 가족 내 소중한 추억과 경험 속에 끌어넣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초국적 삶으로 인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속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호 같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Falicov 2007). 이 때 아래의 면접자 D처럼 가능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호 긍정적인 경험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상상을 통한 “심리적 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되도록 긍정적이고 자세하게 서로 간의 일상생활을 상호교환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주로 일상적 대화를 하지 뭐...큰 애가 이랬어. 작은 애가 이랬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생방송 하듯이 제가 얘기를 해 주고.”(면접자 B, 2년 7개월)

“우리 남편은 매일 전화하거든요. 화상 통화도 하고. 근데 애들이 바빠서 잘 못하고 전화가 제일 빨라. 근데 우리 남편은 항상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얘기 하고, 그래서 두 달, 세 달 후에 왔을 때 대화 속에 바로 들어가요. 무슨 얘기 오고 가는지, 중간에 다 알고 있어.”(면접자 C, 5년 8개월)

“좀 더 보고 싶고 애절한 마음이 있죠. 그 전에는 막 함부로 하다가. 좀 더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멀어지니까 일부러 더 막 부드럽게 하고, 좋은 것만 얘기 하고, 여기서는 힘들고 아프고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해 봐야 도움도 안 되고.”(면접자 D, 1년)

정리하면, 비록 남편이 매일의 일상생활을 함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면접자들은 ‘기러기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국의 남편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가족 내 아버지 존재 혹은 남편 존재의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의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접촉의 통로를 만들고 제한된 접촉 상황에서 상호간 친밀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정하는 것, 즉 관계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역할이 바로 면접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2) ‘가족일’ 재정립: ‘의미’의 재부여와 새로운 ‘지원관계망’ 형성

면접자들이 낯선 땅에 들어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조차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늘 해왔던 ‘가족일’조차 새로운 도전이 된다. 미국에서의 가족일은 한국에서의 가족일과 내용과 깊이가 다르다. 가족의 의식주를 돌보고 자녀교육을 위해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지 모르지만, 문화도 생소하고 영어도 어눌한 상황에서 면접자들에게 가족일은 ‘늘 해왔던 익숙한 일’이라기보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어야 하는 심적·육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것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가족일’을 재분배하는 것에서부터, ‘각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등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감까지 아우르는 의미를 갖는다.

첫째, 면접자들은 독립적이고 주도적 입장에서 ‘가족일’을 재정립한다. 기러기가족이 다루어야 하는 가족일은 크게 자녀교육관련 일과 일상적 가사일 등의 두 가지이다. 한국에서도 이 일들은 주로 면접자들의 몫으로 남편은 집안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다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큰 거 같은 거는 의논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고.”라는 면접자 J의 말처럼, 비록 남편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어도 알게 모르게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도움마저 받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자동차나 전기, 자녀 훈육 등 한국에서 남편이 하던 역할까지 모두 떠맡는 “멀티포턴트(multipotent)”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일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접자들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독립심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면접자 G의 언급은 흥미롭다. “여기서 사는 거 한국에서 사는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겸손하게 사는 거잖아요. 알뜰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딜 가서 못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 역할은 멀티포턴트지 뭐. 다 하지. 차도 고치고 컴퓨터도 고치고 등도 고치고. 완전히 아빠 역할 다 하는 거고. 엄마가 좀 무서워졌어요. 원래는 안 무서웠는데 (여기 와서) 엄청 무서워지고. 마음 가짐. 아이 아빠가 없으니까 규율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규율을 가지려고 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항상 그렇게 하고”(면접자 D, 1년)

“일단 필요할 때 없으니까.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도 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의논하고 같이 얘기 하고, 어쩔거나 필요할 때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죠. 그리고 집안 일이라는 게 남자 도움이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면접자 G, 2년)

둘째, 가족일의 강도가 매우 강해서 집약적(intensive)인 반면, 가족일의 범위는 “내 자식, 내 남편”으로 축소된다.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댁

을 비롯한 일가친척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면접자들이 챙겨야 하는 가족일이 좀 더 ‘핵가족’에 집중된 것이다. 아래의 면접자 K의 언급은 이것을 잘 반영한다. 이러한 가족일 범위의 축소는 면접자들에게 해방감과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각 가족구성원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가족일’의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위안이 되기도 한다.

“여기 오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런 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안 대소사에 대해 신경을 끊어도 되잖아. 전화 한 통화면 되고. 한국에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중략) 와서 보니 이 생활도 편한 거야. 다시 돌아가서 또 돌아가면 못 할 거 같애. 6개월 지나니까 애들하고 나만 돌보면 된다는 그런...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면접자 K, 7년)

또한 ‘가족일’이 부모와 미혼의 자녀의 ‘핵가족’으로 집중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별역할 분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편은 명백히 경제적 지원자로서 ‘가족일’을 지원하고 부인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Huang & Yeoh 2005; Waters 2002)에서 지적하듯이, 외형상 가족 내 성별분업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통의 가족에서처럼 남성의존적(male dominance)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어차피 남편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분업구조가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존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부장적 제약으로부터 부인이 해방됨을 느끼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상이한 가족문화를 경험하기도 하고(개척자전략), 가끔 보는 가족에 대한 애뜻한 마음 때문에(상대화전략) 좀 더 가정적이고 자식과의 활동에 적극적인 남편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아래의 면접자 G의 말은 이러한 남편의 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가끔 보니까 (미국에) 오면 가족에 헌신하러 오는 거잖아요. 아침에 00이 빵 먹고 싶니? 아빠가 해줄까? 밥도 해 놓고. 야, 나

가자. 테니스 하자. 워 게임 하자. 그러고.”(면접자 G, 2년)

둘째, 새로운 ‘지원관계망’ 형성한다. 지금 당장 가족과 친척들로부터의 도움과 지지를 얻을 수 없는 형편에서 기러기엄마들은 한국의 가족 지원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지원네트워킹을 만들어야 하기도 한다. 면접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로 한인교회가 한국의 확대가족을 대체할 만큼의 중요한 지원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아래의 면접자 E처럼 교회, 특히 한인교회를 통한 한인들과의 인적관계망 형성은 부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녀의 역할 모델을 찾아주기도 할 뿐 아니라, 자녀교육정보, 일상생활 정보 등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이고도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한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의 기러기엄마들을 만날 기회를 얻기도 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경험을 나누고 삶의 노하우를 나누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게 아빠가 없을 때 많이 힘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형을 소개시켜 줄까, 남자들을 많이 소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유스부(청년부). (중략)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다 친해. 너무 형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빠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형들이 너무 많은 거야.”(면접자 E, 3년)

정리하면, 면접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 낯설음을 ‘가족일’에서도 느낀다. 변화한 가족의 생활의 장에서 엄마로서 면접자들은 독립적이고 주도적 입장에서 ‘가족일’을 재조직할 뿐 아니라, 가족 간 역할

과 기대를 조절한다. 또한 한인커뮤니티 역시 기러기가족의 불안정한 가족관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생’의 재해석: 당연함과 임시성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인데 애들이랑 당신이랑 떨어져 있는 게 아쉽지만 우리 가족의 발전을 위해 이 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그렇게 믿어요. 가족이 꼭 같이.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해,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행복했을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중략) 남편이 좀 힘든 건 있겠지. 부작용도 있죠. 근데 이 게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거 같아. 아직까지는...”(면접자 E, 3년).

비록 면접자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가족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이 떨어져 살면서 유대감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기러기가족으로서 가장 힘든 점을 가족들이 떨어져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부족한 정보,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 놓는다. 자식을 위한 가족인 만큼 부부 개인의 희생과 멀어짐 뿐 아니라, 가족원 서로의 ‘심리적 거리감’은 불가피한 현상인 듯하다. 이처럼 면접자들에게 기러기생활은 자식을 위한 희생, 미래를 위한 희생이며,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임이 분명하다⁴⁾.

아래 면접자 G의 말처럼, 면접자들은 ‘잃어버린 현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받아들인다. 즉, ‘희생’의 의미를 재해석 하면서 현재 삶의 위안거리를 찾아야 한다.

3) 본 연구자가 ‘기러기엄마’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흥미로움을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같은 한인커뮤니티라도 ‘이민자’(영구정착자)와 ‘기러기가족’ 사이에 생각보다 높은 경계감이 형성 되어있다는 점이다. 면접자들에 의하면 ‘기러기엄마’는 한인이민자들에게도 기피대상이라 한다. 심지어 이민자들은 자녀들이 기러기자녀들과 어울리는 것도 못마땅해 할 정도라는 것이다. 한인교회 역시 이민자들이 위주가 된 교회와 기러기가족 혹은 잠시 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가족들이 주로 참석하는 교회가 구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러기가족의 지원관계망은 동료기러기가족의 집단, 혹은 그들이 속한 교회에 축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4) “맞아요. 결국 가장 큰 특징은 희생인 거 같아요. 미래로 뭉쳐 있어요.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희생하는”(면접자 A, 1년)”

이 때 주목할 점은 면접자들이 현재의 희생을 ‘특별한 희생’으로 해석하지 않는 점이다. 기러기가족의 자녀 중심 삶이 한국의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라는 ‘정당화’이다.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현재를 희생할 것이라고 위안하기 때문이다. 즉, ‘기러기엄마’라서 유별나게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머니’라면 당연히 할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굳이 기러기엄마의 일생을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차피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치러야 하는 ‘인생과업’일 뿐이라는 의미 부여이다. “선행연구(김의철·박영신 2008; 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2)에 의하면 한국의 성인들에게 무엇을 가장 성공적인 생활경험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때, ‘가정생활’이 중요하였으며, 가정생활 중에서도 ‘자녀교육과’ ‘자녀발전’이 성공의 핵심적 의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러기엄마들의 첫 번째 위안, 즉 “엄마로서 책임감”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자녀중심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한국인의 토착적인 심리적 기재임을 알 수 있다.

“일단은 자식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식의 현재 뿐 아니라 자식의 미래까지도 부모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인되는 거죠. 만약 자식의 현재가 중요하다 하면 헤어져 있으면 안되죠. 지금 현재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게 맞죠. 자식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하고, 주변에서 다 얘기 들어 보면 애들은 뭐를 해야 하고 뭐를 해야 하고 애를 막 몰아치는 경우를 보면 다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너 왜 그러는 데 하면 나중에 커서 날 원망하면 어떡해, 이거예요...(중략) 저희 남편하고 얘길 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울 것 같다.”(면접자 G, 2년)

‘희생’에 대한 두 번째 위안거리는 면접자들에게 현재 남편과의 헤어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계획일 뿐이라는 의미 부여이다. 기러기가족의 삶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인

생계획이지만, 면접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인생의 한 시기를 잠깐 투자한 것이라 간주된다. 이것은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자식을 다 키워 놓고 한국에 돌아갈 거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영원히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하죠.”라는 어느 면접자의 말처럼 기러기가족은 시간적으로 무한정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끝이 보이는 일시적 프로젝트에 불과한 “참을 만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면접자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는다. 미래에 다시 돌아갈 한국 문화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시켜 준다. 기러기생활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큰 장점인 반면, 한국과 미국 문화의 중간에서 어느 곳에도 짊 수 없다는 불안정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접자들은 자식들에게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도록 한국 드라마를 보여준다거나, 한국말을 계속해서 쓰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면접자들이 보여주는 한국문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은 자칫 두 국가, 두 개의 상이한 문화에 가족경계망이 모두 걸쳐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함을 견디고, 이질적 문화경험으로 인한 가족 내의 부모자녀세대 혹은 부부간의 문화갈등을 적절히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2. 기러기가족의 가족경로와 영향요인

“기러기는 성공 비성공을 따질 수가 없어. 과정 중에 있는, 생활하는 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걸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게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요 시기를 선택했다 뿐이지 이로 인해서 기러기 생활을 끝내고 가면서 성공했다 성공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면접자 C, 5년 8개월)

기러기가족은 분명 명확한 목표와 명확한 동기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기러기가족이 같은 끝인 지점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6개월부터 9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국 거주 경험을 포함한 면접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러기가족이 만들어 가는 가족경로(family path)가 다양한 것을 알았다. 기러기가족은 한국과 미국의 양쪽에 걸쳐 있는 불안정한 삶인 동시에⁵⁾, 사회적 성취를 위한 또 다른 옵션을 확보한 특권적(privileged) 삶이기도 하다⁶⁾. 이러한 양가적 삶 속에서 개인, 가족,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과 가족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상이한 가족경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의 면접자 C의 말처럼 기러기생활은 어느 한 시점의 성공과 실패를 논의할 수 없는 하나의 인생 과정 중의 '선택'의 문제라 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선택적으로 형성되는 기러기가족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러기가족의 가족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인다. 하나는 '연속형'이며, 또 하나는 '비연속형'이다. '연속형'(continuous)이란 자녀가 대학교육 혹은 그 이상까지 미국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계속 자녀와 어머니가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면, '비연속형'(discontinuous)은 가족분거의 기간을 '자녀가 영어를 유창하게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로 한정하며, 주로 2년-3년 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겉보기로 보면, '연속형'과 '비연속형'의 구분은 자녀의 미국 교육기간이 얼마인가라는 체류기간의 길이에 달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단순히 '시간적 차원'이 아닌, 개인과 가족의 여건, 가치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등이 상호 맞물려 있는 '다차원적 선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면접자들이 처음 기러기가족으로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가장 중요한 동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면접자들의 경우 기러기가족의 시작점은 글로벌화 시대에 영어습득을 통해 자녀가 성공을 위한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나

가족원들이 기러기생활에 익숙해지고 자녀와 부모 모두가 미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초기의 목적이었던 '자녀의 영어습득'을 달성하는 순간, 자녀의 미래와 가족전체의 목표와 방향을 재검토할 시점을 맞는다. '연속형'의 기러기가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연속형'의 기러기가족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속형'으로 향하는 기러기가족의 목표는 더 이상 자녀의 영어습득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도구나 자원으로서는 기능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면접자 J의 말처럼 '연속형'의 면접자들은 "굳이 영어교육 때문에 기러기가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넓은 세계에서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통해(개척자전략) '과연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녀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인가', 즉 기러기생활의 본질적 이유와 방향을 재검토 하며 영어습득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접자 I처럼 처음에 면접자 본인의 학업과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미국에 3-4년간 머물 예정으로 들어왔지만, 미국생활을 통해 계획을 수정한다.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도 미국 문화와 교육시스템에 잘 적응할 뿐 아니라, 기러기엄마로서 면접자 역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미국 문화와 이러한 직업들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미국사회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자녀의 영어습득 이후 귀국하겠다는 가족경로를 수정하여, 자녀가 아예 미국에서 고등교육까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체류를 결정한다. 이후의 삶은 자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넓은 가능성'을 주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재밌게 살았으면. 굳이 좀 풍족하게 못 살더라도 그냥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이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면접자 C의 말처럼 '연속형'은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넓은 곳에서", 그리고 불확실 하지만 더 많은

5) "양다리 걸치면 뭔가 불안하죠. 여기도 가야하고. 여기도 가서 돌아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애들만 놔두고 갈수도 없고. 양다리 걸친 상황도 아니고"(면접자 C)

6) "저희 신랑이 강남 8학군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해요. 자기 중학교 때 친구가 같이 미국 가자 했는데 그때 따라갈 걸 후회해요. 하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옵션이 있고 살아가는 거랑,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우리는 아무래도 혜택 받은 거죠)".(면접자 G)

가능성과 자유로움에 비중을 두는 듯하다.

반면, ‘비연속형’의 면접자들은 어느 정도 자녀가 영어를 습득한 것에 만족하고 다시 귀국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면에는 부모의 직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러기생활은 자녀의 영어습득을 위한 것일 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여기에는 미국체류연장을 위한 비자문제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면접자 G의 경우처럼, 자녀가 미국에 장기적으로 머물기를 원하고, 조만간 영주권이 나오는 등 장기체류의 토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결심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의사결정은 좀 더 복잡한 요인들이 결부된다. 일단 가족 간의 분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한국인으로서 굳이 미국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반문한다. 오히려 한국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학교를 통해 형성된 ‘동창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⁷⁾

따라서 영어습득은 단지 인생의 한 과정에서 사회적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기러기생활은 가족 간의 친밀감을 희생하면서까지 치러야 하는 본질적인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가족의 향후 경로를 미국 사회에서 장기체류로 연장시키지 않는다. 만약 자녀가 계속해서 미국에 남고 싶다 한다면, 그것은 기러기생활이 아닌 자녀 스스로의 힘으로 미국에 올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학교 혹은 대학원 진학 이후의 시기로 미루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면접자들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다양한 차원의 관련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녀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미국의 장기체류를 위한 법적 신분이 보장된 경우 ‘연속형’에 대한 고려는 훨씬 쉬워진

다. 면접자 A는 “자녀가 시민권이 있었던 것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다”고 말한바 있다. 완전히 미국으로 이민을 하지 않은 채 어중간한 신분으로 체류를 연장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그럴 경우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 밖에 없으나 이럴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반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있는 경우, 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가족경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줄어든다.

둘째, 자녀의 학년 역시 고려할 사항이다. 아무리 자녀가 영어를 능숙히 구사한다지만 우리사회처럼 매우 질이 높고 경쟁적이면서 급변하는 교육체제에서 귀국 이후 동년배와 치열하게 경쟁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이런 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조기유학 이후 되돌아온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정적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김홍원 2005). 따라서 어린 시절에 미국에 들어와 체류가 길어지면서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생이 된 경우 귀국 이후 부모와 자녀 모두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의 우려 때에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으로 귀국을 망설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미국에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연속형’을 고민하는 계기를 맞는다.

셋째, 가족의 경제적 여건(family wealth)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 측면에서 면접자들이 기러기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기러기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두 곳의 가계를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는 자녀영어교육에 대한 의미부여의 차이로 연결된다고도 한다. Park & Abelmann(2004)에 의하면,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자녀영어교육의 의미가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중산층의 어머니들의 경우 영어가 성공을 위한 도

7) “영어를 3년 이상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지 않나, 사회를 제대로 알기를 하나, 한자를 제대로 알기를 하나, 국사를 제대로 알기를 하나, 여기에 영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중략) 처희 시아버님이 계속 들어와라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다녀야 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중고등학교 네트워크가 평생 좌우한다.”(면접자 G, 2년)

구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면, 상류층 어머니들에게는 자아만족적 성향(self-satisfaction)이 강하다. 이 외에도 경제적 여건은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상호를 방문할 수 있는가의 방문 접촉기회와 연결되면서 가족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 창출의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⁸⁾.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빠의 시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이게 중요하겠죠.”라는 면접자 G의 말은 가족경로의 형성에 있어서 가족의 부가 갖는 기능을 요약한다 하겠다.

넷째, 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outlook)도 고려 요인 중 한 부분이다. 기러기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초국적 가족구조는 가족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물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져 왔다. 글로벌화의 진행, 사회의 경제위기, 고용불안, 교육시스템 등은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의 토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자 A는 “세계의 트렌드를 보잖아요. 글로벌이 코노미라고 그 애길 많이 하잖아요. 글로벌리즘이라는게 국제화 시대이고 세계화 시대이고 국경이 없어지고, 그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넓은 세계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넓은 세계에서...”라고 언급한바 있다. 즉, 사회전반을 구성하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이를 기초로 한 향후 전망은 기러기가족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적 선택의 순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가치의 요인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초기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하더라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를 통한 사회적 성취가 궁극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속형’을 선택한 면접자 B의 말을 들어보자. “아빠 친구가 애들 행여나 공부시키다가 거기서 놀러 앉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애 끼고 살래요? 거기 부모님도 거기 끼고 사시

냐구. 미국에 있다고 못 와? 미국에 있다고 내가 못 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보내, 그리고 보내면 지들 선택이지, 내가 그걸 끼고 살 거예요?” 면접자 B의 경우, 기러기생활을 유지하고 가족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로서 가족이라는 경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더 나아가 포괄적으로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결국 기러기생활은 자녀가 영어를 습득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가족 전체에 혜택을 주는 하나의 특권적 옵션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나, 이 둘 모두를 아울러야 하는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고민덩어리일 수 있다. 과연 기러기생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족경로를 취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면접자와 그 가족들의 가족가치관, 개인가치관의 문제로 수렴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연속형’과 ‘비연속형’의 기러기가족경로는 단순히 시간적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표와 동기, 더 나아가 가족의 가치관이 반영된 의사결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러기가족경로는 처음부터 확고히 정해진 것이라기보다 가족을 둘러싼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기러기가족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언제까지 기러기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이 때 기러기가족의 결정에는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V. 맺는말

본 연구는 지난 십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는 기러기가족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탐색하기보다, ‘어떻게’ 기러기생활에 적응하는가를 심층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가족관계의 역동성과 변형

8) 최근 뉴욕타임즈는(2008년 6월 8일자) 한국의 자녀영어교육 열풍으로 인한 기러기가족현상을 소개하면서 ‘독수리아빠’와 ‘뽕권아빠’를 설명하였다. 기러기가족이 상류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확산되었는데, ‘독수리아빠’란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일 년에 몇 번 씩 미국의 가족들을 방문할 여력이 있는 아빠’를 지칭하는 반면, ‘뽕권아빠’는 경제적 여건과 직장상 이유로 한국에 발이 묶여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빠를 의미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성, 개방성을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러기가족의 경로를 관찰하면서 가족경로를 둘러싼 개인, 가족, 환경의 개입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면접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드러난 가족 간의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한 가족관계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자들은 본국의 남편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가족의 연결점을 만들어 나간다. 이때 어떠한 접촉방식을 선택하는가,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는 자녀의 연령, 아버지의 직장상황 등의 가족여건에 따라 다양하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접촉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대화전략'에 있다. 이것은 본국의 남편과 가능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생방송"하듯이 자세히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 등의 두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선택적 의사소통(selective communication)'이다. 이러한 전략은 가족원 간의 심리적 연결통로로써 작용하면서, 이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감'을 잊고 매일 함께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면접자들은 '가족일'을 재정립한다. 아무리 한국에서부터 도맡아온 '집안일'이라 하더라도 새롭고 낯선 문화에서 혼자 수행해야 하는 가족일은 새롭고 부담스럽다. 일단 면접자들이 주도적 입장에서 일상적 가사일과 자녀교육일에 집중적 노력을 다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편은 경제적 부양자, 아내는 가사일 담당'이라는 분명한 성역할 경계가 형성되지만, 이것은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형성된 구분일 뿐, 미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개척자전략) 오히려 남편이 예전과 달리 좀 더 가족일에 관심과 자상함을 보였다든 면접자들이 많았다. 또한 한국의 확대가족을 대신하는 관계망으로써 한인교회와 커뮤니티 역시 면접자들의 '가족일'을 돕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대신한 역할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자식을 위한 '희생'의 삶을 '미래지향적 투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기러기가족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현재의 삶을 희생한 생활패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위한 '특권적 옵션'이라고 위안한다. 어차피 한국에 있다 하더

라도 이 시기의 부모나 자녀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역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단지 한국과 미국 모두를 아우르는 생활영역, 그리고 영어의 습득 기회는 분명 기러기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이다. 또 하나, 현재의 가족 간 분거와 희생이 미래를 향한 임시적인 계획, 인생과정 중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기러기가족으로서 분명한 가족목표를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가족은 분명한 '한국 문화에 속한' 가족임을 잊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안정한 가족위치로 인한 모호함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기러기가족이 자녀의 교육, 영어 습득 등 가족 공통의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에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라는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국경을 초월한 '물리적 거리감'은 '기러기가족이 어떻게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원인이자 해답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기러기엄마들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기러기가족 원들 사이에 놓인 두 개 국가의 '물리적 거리감'이 단순히 공간적 거리감, 왕래의 불편함을 의미하는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의 소소한 측면에서부터 정서적 측면뿐 아니라, 가족 가치관, 역할 등 보다 근본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형성되는 '거리감', 즉 문화적 이질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기러기가족 앞에 놓은 가장 핵심적 과업은 이러한 '물리적 거리감'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도 끈끈한 가족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정리하였듯이, 초국적 가족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작업이며(개척자전략), 때로는 가족 내 관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새로운 가족관계 영역을 창조하면서(상대화전략) 가능해진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체류기간을 가진 면접자들 덕분에 기러기가족의 변형성, 즉 상이한 가족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러기가족은 자녀에게 더 나

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어를 습득하도록 한다는 목표, 즉 특권적 삶이라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족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분리되어 양쪽으로 걸쳐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 이러한 양가성을 조절해가면서 면접자들은 '연속형', 즉 미국에서 자녀의 대학 이상의 교육을 목표로 채류를 연장하느냐, 혹은 '비연속형', 즉 단기간 동안 머물면서 자녀의 영어습득에 만족하고 귀국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연속형'과 '비연속형'의 가족경로는 외형상 자녀의 미래계획, 즉 자녀의 교육 목표가 언제까지 어디를 향해 있느냐로 보이지만, 이것의 형성에는 자녀 관련 요인, 가족의 경제적 여건, 사회에 대한 전망, 가치 등의 기러기가족이 속한 개인, 가족, 사회문화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작용한다. 면접자들은 기러기생활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경험들을 기존의 가치와 생활패턴과 비교, 조정하는 프론티어링의 경험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관과 환경에 영향을 받은 '변화된 기러기가족'의 일부로서 가족경로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러기가족은 현재의 불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에 또다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변형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시점에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수없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러기가족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떨어져 지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들이 과연 어떻게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연구들이 간과해왔던 기러기가족의 적응성과 관계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기러기가족의 삶은 한 시점에서 동일한 목표와 배경을 가진 한 가지 스테레오타입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조건,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의 충돌 속에 변형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기러기가족의 선택, 기러기가족 경로는 기러기가족들만의 몫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한 기러기가족의

역동성, 다시 말해서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이 투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선미(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4), 171-189.

김양희·장은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김양희·최명선·이지향(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2-152.

김의철·박영신(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김홍주(2001) 조기유학(유학이민)의 현황 및 국민의식 분석. 2001년도 KEDI 제 1차 교육정책 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5-30.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2005년도 KEDI 제 26차 교육정책 포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35-36.

데보라 K 패짓·유태균 역(1998) 사회복지질적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150-162.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2)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5-110.

오옥환(2008) 조기유학, 유트피아를 향한 출국-조기유학의 복합적 기능과 역기능. 서울: 교육과학사, 37-64.

이현지·남현주(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4), 121-142.

정광순(2006) 초등학생의 유학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9(2), 117-139.

조 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신글로벌 모자녀 가족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조혜영·최원기·이경상·Nancy Abelma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최양숙(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2), 37-65.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Baldassar L(2007)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 provision of moral and emotion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truth and distance.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4, 385-409.

- Boyd M(1996) The sociology of migration. Cheltenham: Brookfield 297-328.
- Bryceson D, Vuorela U(2002) The transnational family: new European frontiers and global networks. NY: Berg, 3-30.
- Da WW(2003) Gender relations in recent Chinese migration to Australi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3), 361-384.
- Dreby J(2006) Honor and virtue: Mexican parenting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Gender and Society* 20, 32-60.
- Falicov CJ(2005) Emotional transnationalism and family identities. *Family Process* 44, 399-406.
- Falicov CJ(2007) Working with transnational immigrants: expanding meanings of family, community, and culture. *Family Process* 46, 157-171.
- Huang S, Yeoh BSA(2005) Transnational famili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China's 'study mothers's in Singapore. *Global Networks* 5(4), 379-400.
- Landolt P, Da WW(2005) The spatially ruptured practices of migrant families: a comparison of immigrants from El Salvador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urrent Sociology* 53(4), 625-653.
- Lee YJ, Koo H(2006) Wild geese fathers' and a globalised family strategy for education in Korea, *IDPR* 28(4), 533-553.
- New York Times(2008) 'For English studies, Koreans say good bye to dad', 8 June.
- Park SJ, Abelmann N(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 Parreñas R(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lipo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5(4), 317-336.
- Ryan L(2004) Family matters:(e)migration, familial networks and Irish women in Britan.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351-369.
- Schmalzbauer L(2008) Family divided: the class formation of Honduran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8(3), 329-346.
- Şenyürekli AR, Detzner DF(2008)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a transnational context: the case of Turkish families. *Family Relations* 57(4), 457-467.
- Sorensen NN(2005) Transnational family life across the Atlantic: the experience of Colombian and Dominican migrants in Europe.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in a global perspective', Wassenaar: The Netherlands.
- Waters JL(2002) Flexible families? 'astronaut' households and the experiences of lone mothers in Vancouver, British Columbia. *Social and Cultural Geography* 3(2), 117-134.
- Yeoh BSA, Huang S, Lam T(2005) Transnationalizing the 'Asian' family: imaginaries, intimacies and strategic intents. *Global Networks* 5, 307-315.